

선행명사구의 유정성과 조사 「에게/에」의 선택

김 형 정*

1. 머리말

이 글은 말뭉치를 이용한 실증적인 기술 방법에 의해 한국어의 조사 ‘에게’와 ‘에’에 선행하는 명사구¹⁾ 범주의 분포상의 특징 및 연결 관계²⁾의 특성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선행명사구의 ‘유정성’과 조사 ‘에게/에’의 선택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명사구에 ‘에게’가 연결되는지 ‘에’가 연결되는지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정성(animacy)’이다. ‘유정성’에 관한 앞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정]:[-유정]’의 이분법적 자질 범주로 분류하는 관점이 특별한 문제 의식 없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정성’이라는 의미 개념은, ‘명사구에 내재하는 본질적 의미 특성에 따른 위계적(hierarchical) 범주’로서 파악할 때 비로소 그 본질이 올바르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계는 단속적인 것이 아니라 ‘원형성(prototype)’과 ‘정도성(degree)’³⁾을

* 일본 도시샤 대학교

- 1) 한국어의 조사가 구 단위에 붙는 범주라는 것은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 글의 조사 ‘에게’와 ‘에’ 또한 선행하는 명사구 전체에 연결된다. 다만 선행명사구의 분포 조사에 있어서는 편의상 명사구의 중심이 되는 체언 범주를 중심으로 빈도를 산출하였다.
- 2) 이 글에서는 ‘연결’과 ‘결합’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조사나 어미가 명사구나 동사구에 붙어서 하나의 통사적 단위를 이루는 것은 연결 관계, 술어와 논항이 이어져 특정한 의미 구조를 이루는 것은 결합 관계라고 하기로 한다.
- 3) 원형성(prototype)과 정도성(degree)이라는 개념은 ‘기능-유형론적 문법(Functional-

가지는 연속적인 형태의 위계가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기능-유형 문법(Functional-typological approach) 등에서 ‘유정성’을 위계적 체계로 보고 있으며, 학자에 따라 다양한 ‘유정성 위계(animacy hierarchy)’가 제시되었다. 이 글에서는 ‘NP에게’와 ‘NP에’ 구성에 대한 양적인 계량 결과와 각 용례에 대한 의미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유정성 위계를 설정하고, 이러한 유정성 위계가 조사 ‘에게/에’의 선택과 어떠한 상호관련을 가지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체언의 유정성 위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일차적인 척도는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인간이나, 인간이 아니냐’ 하는 가장 직관적인 형태의 유정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위계 설정에는 단순히 유정성만이 일원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도 ‘개별화(individuation), 지시성(referentiality), 한정성(definiteness), 단수성(singularity)’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얹혀서 서로 상호작용한다. 물론 이들은 조사 ‘에게’와 ‘에’의 선택에 있어서도 관여적 요소가 된다.

조사 ‘에게’와 ‘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유정성이라는 선행 명사구의 의미 속성뿐만이 아니다. 술어의 의미 속성, 술어와 논항의 결합 관계 등 다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도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를 의미·통사적 조건과 문체적 조건의 두 가지로 나누어 함께 기술해 보고자 한다.

2. 유정성의 개념 및 특징

typological approach)’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다. 연재훈(1995:217)에 의하면 ‘정도’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는 어떤 문법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모든 것을 있고 없음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체(continuum)적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Yamamoto(1999:14)에서는 최소한 인간의 인지 속에서(따라서 인간의 언어에서) 유정성은 계층적이며(gradience), 이러한 계층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기제가 ‘원형 이론(prototype theory)’이라고 하였다.

‘유정성(animacy)’이라는 의미 속성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은 체언을 [+유정] 대 [-유정]의 이분법적 자질(binary features)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음운이나 형태적 조건과 같이 명시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의미적 조건으로 어떠한 범주를 이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류는 체언의 의미 특성에 따라서 ‘전형적인 유정물 체언, 유정물 체언에 가까운 부류, 전형적인 무정물 체언, 무정물 체언에 가까운 부류, ‘유정물 … 무정물’ 스펙트럼 상의 중간 지대에 놓인 부류’ 등으로 나누는 것이다. 즉, 유정과 무정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이어지는 계층적인 범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유정성 위계(animacy hierarchy)’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 유정성에 대한 현대적인 첫 번째 기술은 Silverstein(1976)에서 이루어졌다. Silverstein(1976)에 의하면 문장의 성립에 있어서 유정성 위계상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명사구가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구성이 선호된다고 한다. Dixon(1979)도 이와 비슷한 개념의 ‘행위주로서의 가능성(potentiality of agency)’ 위계를 제시하고 있다. ‘1인칭 대명사(1st person pronoun) > 2인칭 대명사(2nd person pronoun) > 지시사(Demonstrative) > 3인칭 대명사(3rd person pronoun) > 고유명사(Proper nouns) > 사람 보통명사(Human common nouns) > 유정 보통명사(Animate common nouns) > 무정 보통명사(Inanimate common nouns)’가 그것이다. Silverstein(1976)과 Dixon(1979)의 체계를 통해 우리는 유정성의 차이가 ‘사람명사> 유정물 명사> 무정물 명사’의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인칭과 같은 정밀한 문법 형태의 차이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

Foley and Van Valin(1985:288)에서는 지시 대상의 내재적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명사구의 정보 지위(information status)에 근거하여 유

4) Croft(1990) 5장·6장, 연재훈(1995:215) 참조.

정성 위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화자/수신자(speaker/addressee) > 3인칭 대명사(3rd person pronouns) > 사람 고유명사(human proper nouns) > 사람 보통명사(human common nouns) > 다른 유정 명사(other animate nouns) > 무정 명사(inanimate nouns)

Croft(1990:113)는 유정성 위계가 불연속적인 범주가 아니라 ‘가장 유정적인(most animate)’ 것에서부터 ‘최소한 유정적인(least animate)’ 것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연속적 범주라고 하였다. Croft(1990:111-112)에 제시된 ‘유정성 위계는 다음과 같다.

1인칭, 2인칭 대명사(first, second-person pronouns) > 3인칭 대명사(third-person pronouns) > 고유명(proper names) > 사람 보통명사(human common noun) > 사람이 아닌 유정 보통명사(nonhuman animate common noun) > 무정 보통명사(inanimate common noun)

Croft(1990:112-113)에서는 유정성 위계(animacy hierarchy)를 세 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된 체계(three sub-hierarchies)로 보았다. 아래의 ‘인칭 위계, 명사구 위계, 엄밀한 의미에서의 유정성 위계’가 그것이다.

- (1) 인칭 위계(Person hierarchy): 1인칭과 2인칭 대명사가 3인칭 대명사보다 위계가 높다.
- (2) 명사구 위계(NP-type hierarchy): 대명사가 보통명사보다 위계가 높다.
- (3) 엄밀한 의미에서의 유정성 위계(animacy hierarchy proper): 사

람 보통명사가 사람이 아닌 유정 명사보다 위계가 높고, 사람이 아닌 유정 명사는 다시 무정 보통명사보다 위계가 높다.

Dixon(1979), Foley and Van Valin(1985), Croft(1990)는 모두 문법적인 관점에서 통사·의미적 제현상과 관련하여 유정성의 위계를 정의한 것이다. 이에 반해 유정성에 내재하는 인간의 주관적 감각의 면을 중요시하여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유정성을 정의하고 그 위계를 세우고자 하는 입장도 있다.

Langacker(1991:306-7)는 기존에 ‘유정성 위계’로 불리던 것을 ‘공감(empathy)의 위계’라고 이름 붙였다. Langacker(1991)에 의하면 공감의 위계는 ‘세계에 거주하는 다양한 종류의 개체에 대한 인간 중심의 평가’를 반영한다고 한다. 우리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성에 따라서, 즉, 호감이나 공통의 관심사와 같은 문제들에 근거하여 주변의 개체들을 등급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Langacker(1991)는 언어 형태의 문법적·의미적 특징보다는 인간이 다른 개체에 대하여 가지는 주관적 인식의 차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유정성 위계를 설정하고 있다.

화자(speaker) > 청자(hearer) > 사람(human) > 동물(animal) > 물리적 객체(physical object) > 추상적 개체(abstract entity)

Yamamoto(1999) 또한 기본적으로 인지적 관점에서 유정성을 개념 정의하고 있는 연구이다. Yamamoto(1999)에서는 유정성 위계에 관련되는 세 가지 상호작용하는 파라미터로서 ‘일반 유정성 척도(General Animacy Scale), 인칭 위계(Hierarchy of Persons), 개별화 척도(Individuation Scale)’를 들고 있다. 일반 유정성 척도와 인칭 위계는 각각 Croft(1990)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유정성 위계와 인칭 위계에 해당된다. 개별화 척도는 Croft(1990)의 명사구 위계와 내용이 겹치는

데 단순히 대명사와 보통명사 간의 관계가 아니라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Croft(1990)와 Yamamoto(1999)는 접근 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Croft(1990)는 명사의 유정성 위계를 구성함에 있어 수(number)의 구별에서의 제약이라는 순수하게 통사적인 기제를 사용한 데 반해, Yamamoto(1999)는 어떤 문법적 특징과 관련지어 접근하기보다는 인간의 심리적 배경이나 인지적 현상을 중요시하면서 이러한 해결책에 도달한다.

한국어와 관련해서 유정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Klaiman(1988:56-62)에서는 한국어의 능동과 피동 구문에서 유정성이 주어 선택의 중요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김은일(2000)은 유정성이 한국어의 문법 체계에서 어떻게 언어적으로 부호화되는지 살펴본 연구이다. 김은일(2000)에 의하면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유정성이라는 의미 영역이 문법의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국부적(local)인 현상이 아니라 형태·어휘·통사 등 한국어 문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부호화되어 나타나는 전국적(global)인 현상이라고 한다.

유현경(2007)에서는 한국어에서 유정성 자질이 조사 ‘에게’의 출현과 관련하여 어떻게 언어적으로 부호화(coding)되는지 그 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유현경(2007)은 조사 ‘에게’에 대해 ‘결합하는 명사의 [유정성] 자질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하였다. 이처럼 조사 ‘에게’의 출현에 있어 ‘화자의 판단’이라는 양태적 조건을 중요시한 것은 본 연구의 논의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앞선 연구의 성과에 기대어 이 글에서는 유정성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접근하고 한다. ‘유정성’이라는 것은 본래 언어학적이거나 보다는 언어 외적인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장 직관적인 형태로는 무생물보다는 동물과 같은 생물이, 인간이 아닌 생물보다는 인간이 더 유정적이라고 느끼는 인간의 감각을 들 수 있다. 즉, 유정성이

라는 것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개체들에 대한 인간(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판단의 주체로서의 ‘나’) 중심의 주관적인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구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개체에 대한 유정성의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개체와 개체 사이의 구분 또한 확실한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형성’이나 ‘정도성’이라는 개념으로 유정성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가장 타당한 접근법이 된다.

인간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러한 유정성의 개념 및 위계는 언어학적 제한상에 관여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지만 유정성이 언어학적 현상에 작용할 때는 ‘인간, 동물, 무정물’ 등의 생물학적 개념 그 자체로 직접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학적 매개체에 투영된 형태로 관여하게 된다. 즉, 이들 개체들은 ‘인칭대명사, 고유명사, 사람 보통명사, 동물명사, 무정물 명사’ 등 구체적인 어휘 범주를 통해 언어 현상에 관련되는 것이다. Silverstein(1976), Dixon(1979), Foley and Van Valin(1985), Croft(1990) 등에서 명사 범주를 사용하여 유정성의 위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Croft(1990)에서는 수의 구별에서의 제약이라는 한 가지 통사적 현상에 기대어 명사구의 유정성 위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한두 가지 통사적 기제를 통해 한 언어의 유정성 위계의 본질이 총체적으로 드러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유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시 대상이 되는 개체가 가지는 의미적 특징에 기대는 부분이 크므로 분명한 객관적 기준보다는 판단 주체가 되는 인간의 주관적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위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정한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유정성 위계와 조사 ‘에게’와 ‘에’에 선행하는 체언의 분포 조사에 근거하여 한국어에 적용되는 유정성 위계에 관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가정을 세워 보고자 한다.

1) 어떤 개체를 유정물로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의지와 의사를 가지고 움직이거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개체들에 대한 유정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인간과 비슷한 존재라고 느낄수록, 즉 감정이입의 정도가 높을수록 더 유정적인 존재로서 인식하게 된다.

⇒ 1), 2)에 따르면 유정성 위계에서 아래와 같은 우선도를 설정할 수 있다.

- 유정물 체언 >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적 존재 > 무정물 체언
- 사람 유정물 체언 > 사람이 아닌 유정물 체언

3) 지시 표현에 내재하는 본질적 의미가 지시 대상이 되는 한 명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람에 가까워질수록 개별화 척도⁵⁾가 높으며, 개별화 척도가 높을수록 유정성 위계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된다.

⇒ 3)에 따르면 유정성 위계상 아래와 같은 우선도를 설정할 수 있다.

- 사람고유명 > 사람 보통명사
- 인칭대명사 > 사람 보통명사
- 단수 명사구 > 복수 명사구

4) 발화행위의 직접적인 수행자이자 참여자가 되는 화자(1인칭 대명사)와 청자(2인칭 대명사)는 발화 장면에 존재하지 않는 3인칭 대명사 혹은 보통명사보다 유정성이 높다.⇒

- 1인칭(2인칭)대명사 > 3인칭대명사/3인칭 보통명사

5)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별화 척도’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Yamamoto(1999)의 ‘개별화 척도’를 따른 것이다. Yamamoto(1999: 27-35)에서는 개별화 척도는 우리가 어떤 개별 개체를 분명히 범위가 정해져 있고 구분이 가능한 개체로서 구별하는 정도이며, 개별화(individuation)는 유정성에 공헌한다고 한다.

‘NP에게’와 ‘NP에’ 구성에 대한 귀납적 분석을 통해 위에서 제시한 가정들을 증명해 나가면서 유정성 위계를 보다 정밀화·입체화하고, 체언의 유정성 위계와 조사 ‘에게’와 ‘에’의 선택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3. 「에게」에 선행하는 명사구의 분석

‘NP에게’와 ‘NP에’ 용례는 ‘새연세말뭉치’⁶⁾로부터 추출하였다. ‘새연세말뭉치’는 약 100만어절 규모의 현대 한국어 문어 균형말뭉치로서, ‘연세말뭉치1’의 구성 방법을 토대로 최근 10년간(1995-2004년)의 새로운 텍스트로 재구성한 것이다. 텍스트의 구성 비율은 ‘신문-33%, 잡지-20%, 책(소설 및 수필)-18%, 책(취미 및 교양)-10%, 책(수기 및 전기)-9%, 교과서-5%’로 되어 있다.⁷⁾

‘NP에게’에 대해서는 3,591개의 용례 전체를 대상으로 선행명사구의 분포를 양적으로 계량하여 제시한다. 아래의 <표1>이 그것이다.

6) ‘새연세말뭉치’는 2008년에 연세대학교 서상규 교수가 한국어 연구용 균형말뭉치로 구성한 것이다.

7) 용례 추출 및 KWIC 파일 생성의 도구로는 브링햄영(BYU) 대학의 장석배 선생이 개발한 Yconc를 이용하였다.

유형(type)			빈도(token)	비율(%)	
유 정 물 체 언	사 랑 유 정 물 체 언	사 랑 고 유 명	563	15.7%	
		인 칭 대 명 사	1인칭 대명사	511	14.2%
			2인칭 대명사	35	1.0%
			3인칭 대명사	241	6.7%
			인칭대명사 기타	89	2.5%
		인칭대명사 합계	876	24.4%	
		사 랑 보 통 명 사	사 랑 보 통 명 사(일 반)	1,742	48.5%
			사 랑 보 통 명 사(집 단)	67	1.9%
			사 랑 보 통 명 사(친 족)	164	4.6%
		사 랑 보 통 명 사 합계	1,973	54.9%	
	사 랑 유 정 물 체 언 합계	3,412	95.0%		
	사 랑 이 아 닌 유 정 물 체 언	유 사 사 랑 명 사	25	0.7%	
		동 물 명 사	57	1.6%	
		사 랑 이 아 닌 유 정 물 체 언 합계	82	2.3%	
유 정 물 과 무 정 물 의 경 계 적 존 재 (조 직, 지 역 공 동 체, 식 물 명 사 등)		80	2.2%		
무 정 물 체 언		17	0.5%		
합 계		3,591	100.0%		

[표 1] ‘에게’의 선행하는 명사구의 분포

전체 용례 중 유정물 체언은 3,494개(97.3%), 무정물 체언은 17개(0.5%),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적 존재(사람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나 지역공동체 등)는 80개(2.2%)로 나타난다. 유정물 체언 중 사람 유정물 체언과 사람이 아닌 유정물 체언은 각각 3,412개(95.0%), 82(2.3%)의 빈도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조사 ‘에게’의 선택과 선행명사구의 유정성 혹은 ‘인간성(humanness or personhood)’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 사람 유정물 체언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 ‘에게’에 선행하는 사람 유정물 체

언은 크게 ‘사람 고유명, 인칭대명사, 사람 보통명사’의 세 가지 하위 범주로 구별된다. 아래에서 이들 각각에 대해 상술하도록 한다.

3.1.1. 사람 고유명

사람 고유명은 한 개인의 이름(혹은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난희, 김상진, 바네사, 김대업 씨, 이상건 옹, 이재화 양, 홍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해찬 의원, 김대중대통령, 하시모토 총리, 알렉산더 후보, 문 부장, 배조교..’는 ‘고유명+보통명사’의 복합 구성인데, 직함 혹은 직위를 나타내는 보통명사보다는 앞부분의 고유명이 이 명사구의 성격을 결정짓는 주요부라고 판단되므로 고유명으로 분류하였다. ‘이지은’이라는 어떤 여성이 화자와 ‘고모’라는 친족 관계에 있으며, 직업은 고미술품 수입업자이고, 할아버지의 유산 상속인이라고 가정하고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1) {이지은에게/고모에게/고미술품 수입업자에게/유산 상속인에게} 편지를 썼다.

‘수입업자, 상속인, 고모’ 등 직함이나 친족 호칭 등은 ‘이지은’이라는 사람이 사회나 가족 관계에서 가지는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지은’이라는 개별 인간이 가진 여러 면 중의 한 부분만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지은’이라는 고유명으로 지칭하면 그 사람 자체를 전체로서 지시하게 된다. 해당 지시 표현이 지시 대상에 얼마나 가까우냐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사람 고유명은 실세계에 존재하는 지시 대상의 본질적 의미에 아주 근접한 일치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 고유명은 여타 다른 명칭에 비해 지시 대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더욱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 즉, 사람 고유명은 다른 사람 보통명사에 비해 개별화 척도가 높으며,

따라서 사람 보통명사보다 유정성 위계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1.2. 인칭대명사

조사 ‘에게’와 함께 나타난 인칭대명사로는 ‘1인칭: 나(내), 저(제), 우리, 우리들, 저희, 저희들, 2인칭: 너(네), 당신, 너희, 너희들, 여러분, 3인칭: 그, 그녀, 그분, 그들, 그녀들, 그네들, 그대들, 이들, 부정/의문: 아무, 누군가, 누구, 재귀: 자기, 자기들’이 있다.

유정성을 위계적인 범주로 파악하고자 했던 연구들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인칭대명사를 유정성 위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인구어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한국어에서도 인칭대명사가 다른 체언 범주들에 비해 본질적으로 더 유정적인 언어학적 범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인칭대명사는 다른 보통명사와 구별되는 몇 가지 형태적 특징을 가진다. 영어 등의 인구어 인칭대명사에는 보통명사에는 없는 수(number)의 구별이나 성의 구별, 목적격·소유격 등의 굴절형이 존재한다. 또한 한정사(determiners)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보인다. 한국어의 대명사에서 다른 보통명사와 구별되는 형태상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나-우리”, “저-저희”, “너-너희”와 같이 복수 형태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 “나-저”, “그/그녀-당신”과 같이 존칭 형태를 따로 가지는 점, “그-그녀”와 같이 성의 구별이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둘째, 인칭대명사가 지시하는 것은 대다수가 ‘개별화된 사람’이다. 특히 단수 인칭대명사에서 이러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칭대명사가 사람이 아닌 것을 지시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사람이 아닌 유정물 혹은 무정물 개체를 지시하는 경우라도 이는 의인화된 예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사람 보통명사로 분류되는 명사는 특정한 개별 인간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부류에 속하는 불특정 개인을 지

시하거나 부류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는 일도 있다.

- (2) a. 조국은 남자에게 나를 도서출판 청석골의 이사라고 우렁차게 소개했다.
 b. 생동감 있고, 남자에게 예측되지 않는 독립적인 인물들이죠.
 c. {아이/시어머니/상사}는 으레 그런 법이다.
 d. *{나/너/그/그녀}는 으레 그런 법이다.

(2a)의 ‘남자’는 어떤 담화 장면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화자인 ‘나’를 소개해 준 특정한 개별 인물을 가리킨다. 그러나 (2b)의 ‘남자’는 한 개인으로서의 남자라기보다는 ‘남자’라는 부류 중의 불특정한 개인 혹은 부류 일반을 지칭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사람 보통명사는 개별화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부류를 대표하거나 전체로서의 유(類)를 지칭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인칭대명사는 개별화된 사람만을 지시할 뿐 전체로서의 유(類)의 의미는 가지지 않는다. (2d)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보통명사와 달리 인칭대명사는 해당 지시 대상을 ‘전체로서의 한 개인’으로 지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래의 예를 보도록 하자.

- (3) a. 나는 아버지로서의 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장관으로서의 그를 반대한다. (I am not against him as MY FATHER, but as THE LABOR MINISTER.)⁸⁾
 b. 나는 예술가로서의 너를 인정하지만, 너와 함께 일을 하기는 싫다.

8) Yamamoto(1999:33)에서 재인용한 예문이다. Yamamoto(1999:33)에서는 이 문장의 3인칭 대명사 ‘him’은 ‘전체로서의 개별 인간(‘Whole’ individual person)’으로서 지시체를 지시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3a,b)의 ‘아버지, 노동 장관, 예술가’와 같은 사람 보통명사는 엄밀히 말하면 지시 대상이 사회나 가족 관계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나 기능 중의 하나이다. ‘그’ 혹은 ‘그녀’라는 지시 대상이 가진 여러 속성 중의 일부분만을 가리키고 있다. (3b)의 문장은 ‘나는 네가 가진 여러 가지 면 중 ‘예술가로서의 일면’은 인정하지만, 예술가 이외에 네가 가진 모든 면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너’와 일을 하기는 싫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술가로서의 너’나 ‘엄마로서의 그녀’는 성립하지만 ‘너로서의 예술가’ 혹은 ‘그녀로서의 엄마’와 같은 예는 의미적으로 모순된다.

이처럼 인칭대명사는 사람 보통명사와 달리 언제나 ‘개별화된 사람’을 지칭하며, 그 사람의 모든 면을 통틀어 ‘전체로서의 한 개인’으로서 어떤 대상을 지시한다. 보통명사에는 나타나지 않는 수나 성의 구별, 존칭형 등을 가지는 것 또한 ‘개별화된 사람’을 지시할 때 더 세밀하게 부호화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인구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인칭대명사가 다른 보통명사에 비해 유정성의 위계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다.

3.1.3. 사람 보통명사

조사 ‘에게’에 선행하는 사람 유정물 체언의 마지막 유형은 사람 보통명사이다. 사람 보통명사는 맥락에 따라 한 명의 특정한 개인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 부류에 속한 불특정한 개인 혹은 전체로서의 유(類)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4) a. 사람들은 내가 .. 손님에게 발각되어 경찰서로 잡혀갔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

b. 여기서의 친절이란 손님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함을 의미

한다.

- c. 여행사 다니는 친구에게 브라질이야말로 한국남성의 천국이 라는 말을 자주 들었던 것이다.
- d. 친구에게 권하고 싶은 책의 내용을 소개하여 봅시다.
- e. 그 사람에게 텔레비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물건일 거다.
- f. 그런데 사람에 의하여 이룩된 문화는 사람에게 다시 영향을 끼친다.

위의 (4)(a,c,e)에 나타난 ‘손님, 친구, 사람’은 구체적인 한 명의 특정한 개인을 가리킨다. 그러나 (4)(b,d,f)의 ‘손님, 친구, 사람’은 개별 인물이라기보다는 ‘손님 중 불특정한 한 명’, ‘친구 중 불특정한 한 명’ 혹은 ‘친구 일반’, ‘사람 일반’과 같이 그 부류를 대표하는 비한정적 개인 혹은 전체로서의 ‘유(類)’의 의미로 해석된다. 사람 보통명사가 특정한 개인을 지칭할 때에는 한정 표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4c)의 ‘여행사 다니는 친구’와 (4e)의 ‘그 사람’의 ‘여행사 다니는’과 ‘그’는 각각 ‘친구’와 ‘사람’을 수식하면서 그 범위를 한정하여 특정한 개인을 지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사람 보통명사는 실세계의 개체를 지시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1> 지시적 용법(referential): 지시 대상이 실세계에 구체적인 개체로 존재한다.

- ① 한정적 용법(definite): 특정한 개인을 지시하는 경우
- ② 비한정적 용법(indefinite): 불특정의 어떤 개인을 지시하는 경우

<2> 비지시적 용법(non-inreferential): 지시 대상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부류 일반, 전체로서의 유(類)를 지시하는 경우

말뭉치에 나타난 사람 보통명사로는 ‘고객, 공무원, 교사, 기자, 예

술가, 정치가, 근로자, 독자, 소비자, 시청자, 실무자, 수입업자, 여행
자, 책임자, 투자자, 피의자, 보행인, 보증인, 일반인, 현대인, 타인, 외
국인, 외계인, 학생, 졸업생, 사람, 인간, 남자, 남성, 여자, 여성, 청년,
청소년, 아동, 어린이, 후손, 후진..’ 등이 있다.

일반적인 사람 보통명사는 한정 표현의 수식을 받지 않아도 한정적
의미(특정 개인)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 보통명사 중
에는 기본적으로 비지시적 의미(‘전체로서의 유(類)’)로 해석되며, 한
명의 개별 인간을 가리키는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한정
표현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유형이 있다. 아래의 (5)가 그것이다.

- (5) a. 그에 따르면 동화는 원래 민중에게 의미있는 기별과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였다.
b. 대중은 매스컴에 책임을 돌리고, 매스컴은 대중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c.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죽고 살기 식의 각박한 인정을 남겼다.
d. 한 분의 청중에게 이 질문을 해 보도록 합시다.
e. 옆에 앉은 한 명의 이민족에게 들고 있던 죽 그릇을 내밀었
다.
f. 지도적인 기능은 상실되고 대중(독자와 시청자)에 영합하려는
경쟁을 벌인다.
g. "이 민족에 흐르는 피가 싫다"고 절규하던 한 노인이 떠오른
다.

(5a)의 ‘민중’은 ‘한 사회나 국가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피지배계급
의 무리’라는 의미로서 기본적으로 부류 전체의 의미로 사용된다. (5)
의 다른 예들에 나타난 ‘대중, 민족’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특징
을 가지는 사람 보통명사는 ‘공중, 관중, 군중, 대중, 민중, 청중, 가족,
민족, 조선 민족, 쿠르드족, 이민족, 인류, 황인종, 전국민, 전인구, 전

학생 ..' 등이 있다. 이들 명사가 '전체로서의 유(類)'를 기본 의미로 가지는 것은 어휘의 형태 구성과 관련이 있다. 무리를 의미하는 '중(衆)'이나 '족(族)', 전체를 의미하는 '전(全)' 등이 어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 일반이나 부류 전체라는 의미가 기본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명사가 특정한 개인을 가리키는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5)(d,e)와 같이 반드시 한정 표현을 동반해야 한다.

‘대중, 민족, 인류..’와 같은 명사는 유정의 속성을 가지므로 조사 ‘에게’가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5)(f,g)에서는 같은 ‘대중’이나 ‘민족’이라도 조사 ‘에게’가 아닌 ‘에’가 연결되어 있다. 이들 명사는 유정물 체언이지만 ‘전체로서의 유(類)’의 의미를 기본 의미로 가지고 개인을 가리키는 한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개별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 보통명사 중에서 가장 유정성이 낮은 부류에 속하게 된다. 또한 ‘둘 이상의 개인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무리’로서 정의된다는 점에서는 유정과 무정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는 집단명사와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⁹⁾ 따라서 조사 ‘에게’와 ‘에’의 사용에 있어서도 불규칙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사람 보통명사 중에는 아래의 (6)과 같이 ‘사람’과 ‘조직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 부류가 있다.

(6) a. 옆에 앉은 의병에게 주먹밥을 건넸다.

b. 그는 .. 동학출신으로 드물게 의병에(*의병에게) 참여한 사람이다.

9) 그러나 ‘기업, 정부, 자민당, 선수단’과 같은 집단명사는 조사 ‘에서’가 연결되어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지만, ‘대중, 민족, 인류’ 등은 그런 쓰임이 없다. 집단명사에 대해서는 3.3.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a. {기업/정부/자민당/선수단}에서 그 일을 했다.

b. {대중/민족/인류}에서 그 일을 했다.

c. 곧 도착한 경찰에게 B씨는 인계되었다.

d. 보안사나 정보부 , 경찰에(??경찰에게) 알아보시오 .

(6a)의 ‘의병’은 ‘위급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군대에 소속된 병사’라는 의미이며, ‘옆에 앉은’이라는 한정 표현의 수식을 받아 의병 중 특정한 한 명의 개인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6b)의 ‘의병’은 ‘병사’가 아니라 ‘의병 군대’라는 조직을 의미한다. 술어인 ‘참여하다’와의 결합 관계를 보아도 이러한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의병이라는 조직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병사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때의 ‘의병’은 유정물이 아닌 무정물 체언이며, 따라서 ‘의병에’를 ‘의병에게’로 바꾸면 비문이 된다. (6c)와 (6d) 또한 마찬가지이다. (6c)의 ‘경찰’은 ‘경찰관’이라는 의미이고, (6d)의 ‘경찰’은 ‘경찰 조직’을 가리킨다. (6d)의 ‘경찰에’는 ‘경찰에게’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이 경우에는 한정적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으며 비한정적 혹은 비지시적 의미만을 가지게 된다. 앞의 ‘보안사’나 ‘정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조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쪽이 문장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이와 같이 사람 보통명사 중에는 사람 유정물 체언과 조직이라는 무정물 체언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 부류가 존재한다. ‘경찰, 미군, 왜군, 의병, 인민군, 일본군, 전경, 터키군, 헌병’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의미의 경계가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7) a. 그러나 장난삼아 들여다본 물레방앗간에는 단짝 창희의 어머니가 미군에게 몸을 팔고 있었고, ..

b. 미군에게 체포돼 구금 중인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은

..

c. 이씨 등은 .. 범행 장소 등을 물색하다 3일 낮 12시쯤 충남 예산군 신례원 검문소에서 검문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7a)의 ‘미군’은 ‘미국 군대에 속한 군인’ 중 한 명의 특정한 병사를 가리키는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7b)의 ‘미군’은 ‘미국 군인’과 ‘미국 군대’의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 가능하다. 이 예문의 ‘미군에게’는 ‘미군에’로 바뀌 쓸 수도 있다. (7c)의 ‘경찰’은 문장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경찰 조직’이라기보다는 ‘이씨 등의 범죄자를 체포한 경찰관’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실제 용례에서는 ‘경찰에게’가 아닌 ‘경찰에’로 되어 있으며, ‘에게’와 ‘에’ 모두 문제 없이 연결된다. 검문 중인 경찰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으며, 특정한 한 명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기보다는 ‘수십 명의 경찰 집단’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경찰에’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듯하다. 즉, ‘개별화’가 약화되어 비한정적 의미 혹은 비지시적 의미로 사용되면서 조사 ‘에게’와 ‘에’의 사용에 흔들림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1.4. 복수형

위에서 사람 유정물 체언에 해당하는 사람 고유명, 인칭 대명사, 사람 보통명사의 세 가지 범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들 사람 유정물 체언은 단수형뿐만 아니라 복수형으로도 나타난다. ‘가수들, 친구들, 우리들, 그들..’과 같이 유정물 체언에 복수 형태를 만드는 접미사 ‘들’이 붙은 것이나 둘 이상의 수량 표현과 함께 나타나 복수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예들을 복수형으로 분류하였다.

- (8) a. 우리는 침묵을 강요하는 선배들에게 묻는다.
 b. 양상무와 동주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c. 우리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 콜과 가까웠던 저명인사 20여 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다니 기민당은 초상집이나 다름없이 되었다.

- e. 그러자 할 수 없이 후배가 선배에게 다가갔고 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손을 맞잡았다.
- f. 순간 막동이의 주먹이 그에게 날아간다.

(8a)의 ‘선배들’은 사람 보통명사에 복수 접미사 ‘들’이 붙은 것이며, (8)(b,c)의 ‘그들, 우리’는 복수 인칭대명사이다. (8d)는 ‘저명인사’라는 사람 보통명사가 수량을 나타내는 ‘20여 명’과 함께 쓰여 복수형이 된 것이다. (8e)의 ‘선배’는 어떤 집단에서 이 문장의 ‘후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한 명의 특정한 개인을 가리킨다. 뒤이어 나오는 ‘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이 ‘선배’가 한 명의 개별 인물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8f)의 ‘그’ 또한 막동이에게 주먹으로 맞는 한 명의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이다. 이에 비해 (8)(a,b)의 ‘선배들’과 ‘그들’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닌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는 ‘선배 다수’ 혹은 ‘그들 다수’를 가리킨다. 복수 접미사 ‘들’이 붙음으로써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특정 개인이 비개인화되어 경계가 모호한 불특정 다수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복수성은 개별화를 희석시키며, 개별화 척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유정성 또한 약화된다.

3.2. 사람이 아닌 유정물 체언

조사 ‘에게’가 연결되는 유정물 체언 중에는 사람이 아닌 것들이 있다. 아래의 (9)가 그것이다.

- (9) a. 그는 그 샅샅개에게 ‘아트만(眞我)’이라는 이름을 붙여 불렀다.
- b. 그러나 사냥꾼이 없으면 사냥개는 호랑이에게 금방 잡아먹힌다.
- c. ... 초록 비늘의 괴물에게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긴 파고파고라

는 젊은이가..

d. 아이기나의 왕 아이아코스는 신에게 기도했어.

(9)(a,b)의 ‘삽살개’와 ‘호랑이’는 동물명사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용례에 나타난 동물명사로는 ‘개, 개구리들, 개미, 고양이, 고양이들, 곰, 다람쥐들, 닭, 도마뱀, 동물, 돼지, 말, 말벌, 뱀, 벌떼, 비둘기들, 삽살개, 새, 소, 송충이, 수사자, 암말들, 암사자, 양들, 여우, 펭귄, 포식동물, 하마, 호랑이..’ 등이 있다. (9)(c,d)의 ‘괴물, 신’은 인간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과 같은 사고와 감정을 가진 존재로 유추된다. 이를 여기서는 ‘유사 사람명사’라고 하기로 한다. ‘괴물, 신, 신령, 악마, 하나님, 대신大神, 아테나, 오리온, 제우스, 포세이돈, 후직씨(后稷氏)..’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아테나, 오리온, 제우스..’ 등은 그리스 신화나 중국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인데, ‘괴물, 악마, 유령’ 등에 비해 겉모습이 더욱 인간과 유사하며 더 유정적인 존재로 느껴진다. 또한 사람 고유명과 마찬가지로 같은 대상을 지칭하더라도 ‘대신大神’보다는 ‘제우스’라는 고유명을 사용하면 해당 지시 대상이 더욱 더 개별화된 존재로 인식된다.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과 유사한 존재인 유사 사람명사, 그리고 동물명사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유정물 체언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유정성의 위계상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보다는 덜 유정적인 부류, 즉 주변적인 유정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에게’와 ‘에’의 연결에 있어서도 (10)(a,b)와 같이 유정성의 판단에 있어 흔들림이 보이는 예들이 나타난다.

(10) a. 오르페우스는 사랑하는 아내 에우리디케가 뱀에(/뱀에게) 물려 죽자, 아내를 잊지 못하고 하프를 연주하며 명계로 내려간다.

- b. ..도깨비에(/도깨비에게) 흘린 감도 들어 머쓱해지면서 마누라에게 미안한 감이 들었다.
- c. 꿈이 개에게(/*개에) 물었습니다.
- d. 그러나 사냥꾼이 없으면 사냥개는 호랑이에게(/*호랑이에) 금방 잡아먹힌다.
- e. .. 초록 비늘의 괴물에게(/??괴물에)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긴 파고파고라는 젊은이가..

(10a)는 동물명사 ‘뱀’에 조사 ‘에’가 연결되어 있다. 조사 ‘에’와 함께 나타난 동물명사로는 ‘곤충, 모기, 물고기, 뱀, 생쥐’ 등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라는 종(種)과는 거리가 먼 종류가 대부분이었으며, ‘동물, 맹금류’와 같이 특정한 동물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부류 전체 혹은 하나의 유(類) 전체를 지칭하는 예들도 있었다. (10b)는 ‘도깨비’라는 유사 사람명사가 조사 ‘에’와 함께 나타난 예이다. (10)(a,b)와 같이 유사 사람명사와 동물명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조사 ‘에’를 ‘에게’로 바꾸어 써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그러나 (10)(c-e)에서는 조사 ‘에게’를 ‘에’로 바꿀 경우 문장이 어색해지거나 비문이 된다. (10c)는 동물인 개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에’로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10)(d,e)는 문장의 의미구조에서 ‘호랑이’와 ‘괴물’이 사냥꾼을 잡아먹거나 여인을 빼앗는 행위주가 되는데, 이처럼 ‘NP에게’가 술어와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이나 작용을 일으키는 의도적인 ‘행위주’로 해석될 때에는 조사 ‘에’는 선택되기 어려운 듯하다.

3.3.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적 존재

이 글에서는 유정성이라는 것을 원형성과 정도성을 가지는 위계적 범주로서 파악한다. 전형적으로 가장 유정적인 개체인 사람을 중심으

로 이것과 가까운 위치에 중심적인 유정물 개체들이 분포하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변적인 유정물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먼 거리에 전형적인 무정물이 분포할 것이다. 이처럼 유정성을 정도성의 관점으로 본다면 유정물과 무정물의 사이에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경계적(fuzzy-edged) 개체들이 존재하게 된다.

Yamamoto(1999:17-20)에서는 유정성과 무정성의 경계선에 있는 몇몇 예(some borderlines cases)로서 컴퓨터, 자동차와 같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특별한 현대적 기계 종류, 인간의 조직(human organisation), 지리학적 개체(geographical entities)나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ies)를 들고 있다.

Yamamoto(1999)에 의하면 컴퓨터와 자동차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간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여 준다고 한다. Yamamoto(1999:18)에서 컴퓨터가 다른 기계들에 비해 더 유정적인 개체로서 다루어지는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인간을 능가하는 영리함이다. 또한 컴퓨터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 때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 점은 우리로 하여금 컴퓨터가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환상을 품게 한다고 한다. 자동차도 전형적으로 유정물처럼 보이는 기계이다. 이 글에서는 유정물의 가장 큰 특징을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능력으로 보았는데, 자동차류의 탈것은 인간이 조종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운전 중의 대화를 들어 보면 자동차와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아주 많음을 알 수 있다.¹⁰⁾ 한국어의 경우에도 컴퓨터와 자동차는 다른 기계류와 비교해볼 때 조금 더 유정적인 개체로서 인식되는 듯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용례에서는 컴퓨터나 자동차에 ‘에게’가 연결된 예가 없었으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예들이 나타난다.

10) Yamamoto(1999:18)에서는 자동차가 유정물처럼 보이는 이유로, ‘자동차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며, 눈처럼 보이는 헤드라이트와 입처럼 보이는 번호판, 그리고 네 발과 같은 타이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 (11) a. 컴퓨터에게 말 시키기.
 b. 컴퓨터에게 욕먹다.
 c. 슈퍼컴퓨터에게 화내지 마세요.
 d. 아파트 앞마당을 왜 자동차에게 내줘야 하나
 e. 국산자동차가 외제자동차에게 밀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f. .. 접촉사고를 처리하며 당황한 순간에 어정쩡하게 보내 버린
 내 차를 생각하니 이제야 차에게 미안합니다.

위의 예들에서 우리는 화자가 컴퓨터 혹은 자동차를 대화가 되거나 감정을 공유하거나 인간과 같은 행위가 가능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식물명사의 경우이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 (12) a. 그녀는 마음속의 힘을 모아 그 은행나무에게(/*은행나무에) 말했습니다,
 b. 정원에 가득한 나무와 풀들에게(/*나무와 풀들에) 물을 뿌리는 것이 아버지가 하는 일의 전부였다.
 c. 상희, 꽃에(/*꽃에게) 물 주고 있다.
 d. 선생님이 나무에(/*나무에게) 기어오르라고 시켰으나 독수리는 막무가내로 땅에서 바로 날아 나무 꼭대기로 가는 쪽을 택했다.

말뭉치에 나타난 용례 중 식물명사에 조사 ‘에게’가 연결된 것은 6개, ‘에’가 연결된 것은 21개이다. ‘에게’의 선행명사구가 된 식물명사의 경우 6개 중 5개가 (12a)와 같은 의인화의 용법이다. 의인화가 아닌 것은 (12b) 하나뿐이다. 은행나무를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간적 존재처럼 표현한 (12a)에서는 조사 ‘에게’를 ‘에’로 바꿔쓸 수 없지만,

(12b)에서는 가능하다. (12c)는 식물명사 ‘꽃’에 조사 ‘에’가 연결된 것인데, 이 또한 조사 ‘에게’로 바꾸어 써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두 문장의 뉘앙스는 조금 달라진다. ‘꽃에게’라고 했을 때의 ‘꽃’은 상회의 인식 체계 속에서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타자로서의 물리적 객체가 아니다. 감정이입이 가능하며 애정을 가지고 친밀하게 대하는 유정적인 ‘상대’로서 해석이 된다. 반면 ‘꽃에’라고 하면 다른 장소명사처럼 단순한 ‘도달점’의 의미에 가깝다. 한편 (12d)는 조사 ‘에’만을 취한다. 식물 명사는 숨을 쉬면서 살아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유정물과 공통된 특징을 보이지만, ‘움직이는 능력’이 없어 다른 무생물 개체처럼 어떤 고정된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무정물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다. 이처럼 ‘고정된 공간’이라는 처소성에 초점을 맞추면 식물명사는 단순한 장소의 의미가 된다. (12d)의 ‘나무’는 독수리가 기어오르는 연습을 하는 단순한 ‘처소’의 의미이기 때문에 조사 ‘에게’와는 같이 나타날 수 없다. ‘식물명사+에’ 용례의 경우 21개 중 16개 용례가 이처럼 단순한 ‘처소’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한국어의 식물명사는 문맥에 따라서 장소명사로 해석되기도 하고 유정적 존재로 해석되기도 한다. 즉, 한국어의 식물명사는 유정물 체언과 무정물 체언의 경계에 걸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말뭉치에서의 용례를 귀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인간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나 ‘지역공동체(지리학적 개체)’의 경우에도 조사 ‘에게’가 연결되어 유정물처럼 사용된 예들이 나타난다. 아래의 (13)이 그에 해당된다.

- (13) a. ..이러한 글로벌 벤처는 우리 벤처기업에게 좋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b. 이같은 변화는 연립3당의 타협으로 태어난 사회당 총리가 제1당인 자민당에게 총리직을 되돌려 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c. 그로부터 22년 뒤인 1876년 일본은 같은 방법으로 조선에게 개항을 강요한다.

(13)(a,b)의 ‘벤처기업’과 ‘자민당’은 모두 다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13c)의 ‘일본’과 ‘조선’은 나라 이름이다. ‘일본, 조선, 북한, 서울시, 오사카..’ 등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는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된다. ‘오늘 일본에 도착했다.’의 ‘일본’은 아시아 동쪽 끝의 태평양상에 위치한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개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13c)에서의 ‘일본’과 ‘조선’은 지리적 개체로서의 단순한 ‘장소’가 아니다. 조선에게 나라의 문을 열도록 강제하는 행위 주체로서의 일본 정부와 일본 정부로부터 개항을 강요 받는 상대로서의 조선 황실로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즉, 이때의 ‘일본’은 ‘일본’이라는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국민으로 하여 이루어진 국가 조직, 특히 일본이라는 국가 조직을 대표하는 권력 집단을 의미하며, ‘조선’ 또한 조선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황실 혹은 권력 집단을 가리키고 있다. 이처럼 지역공동체는 ‘지리적 개체로서의 장소’와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후자일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개인들로 이루어진 무리’라는 점에서 앞의 ‘벤처기업, 자민당’과 성격이 다르지 않다. 이 글에서는 조직이나 지역공동체와 같은 부류를 ‘집단명사’라는 범주로 분류하기로 한다. 이들 집단명사는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에서 유정과 무정의 속성을 모두 가지게 된다.¹¹⁾ 아래에서 그 이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집단명사는 ‘둘 이상의 개별 인간들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무리’이다. 따라서 이들 집단명사는 구성원인 개개인들의 의지나 지각이

11) 野間秀樹(1990)에서는 한국어 명사 중 단체나 기관을 나타내는 명사 부류를 ‘단체명사(organizational noun)’로 범주화한다. 이들 단체명사는 여러 가지 점에서 활동체인 인간명사와 불활동체인 장소명사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진다고 하였다.

반영된 집합체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아래의 예를 보자.

- (14) a. 전직 테니스 강사인 바비(손 팬)는 노름빚을 갚지 못해 갱단
 에게 손가락 두 개를 잘렸다.
 b. 기력이 소진한 시민단체에게 더욱 험난한 운동을 주문할 수
 없었다.

(14a)에서 ‘갱단’은 실세계에서 어떤 형상을 가진 구체물로서의 개체가 아니다. 바비의 손가락을 자르는 행위를 실제로 행하는 존재는 갱단에 소속된 조직원이다. 그리고 바비의 손가락을 자르도록 결정한 것은 갱단의 우두머리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갱단’이라는 무형의 조직체가 사람처럼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구체적인 행위로써 수행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갱단’이라는 무정물을 마치 살아 있는 사람 유정물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집단명사는 그 무리에 속한 인간들이 가지는 생각이나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대표하는 집합체로서 마치 하나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람 명사처럼 다루어지기도 한다. (14b)의 ‘시민단체’는 시민운동을 목적으로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다. 이 또한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고 살아 있는 유정물이 아니지만 여기서는 마치 생명체인 것처럼 ‘기력이 소진한’이라는 수식 표현이 사용되었다. 실제로 기력이 소진된 것은 시민단체라는 조직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이며, 이러한 구성원들의 감각을 ‘시민단체’라는 조직 전체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벤처기업, 자민당, 갱단, 시민단체, 일본, 조선’과 같은 집단명사는 조사 ‘에서’가 연결된 형태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문법적 특징을 가진다.

- (15) a. {벤처기업/자민당/갱단/시민단체/일본/조선}에서 그 일을
 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집단명사의 유형으로는 ‘FBI, IRA, WHO, 자민당, 정부, 시민단체, 갱단, 조사단, 붉은악마..’ 등의 기구나 조직, ‘LG, 삼성생명, 소니, 에인절스, 한국은행, 남자팀, 우승팀..’과 같은 스포츠팀, ‘기업, 벤처기업, 업체, 제약회사들..’ 등의 기업이나 업체, ‘민주세력, 반대세력, 집권세력..’ 등 어떤 공통된 이념 하에 모인 집단, ‘신세대, X세대’ 등 동시대에 살면서 생각이나 나이가 서로 비슷한 연령층의 집단 등이 있다. ‘아시리아, 일본, 조선, 북한, 신바빌로니아, 시(서울)..’ 등의 지역 공동체 또한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국가 조직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집단명사에 포함된다.

집단명사에 조사 ‘에게’가 연결된 ‘NP에게’는 술어 용언과의 결합 관계에서 ‘어떠한 행위나 작용이 미치는 상대’ 혹은 ‘어떤 행위나 작용을 일으키는 행위주’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아래의 (16)을 살펴보자.

- (16) a. 주인공 안젤라(샌드라 불럭)가 .. 중요한 파일들을 FB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이 그 문제의 장면이다.
 b. 그로부터 22년 뒤인 1876년 일본은 같은 방법으로 조선에게 개항을 강요한다.
 c. 전직 테니스 강사인 바비(손 팬)는 노름빚을 갚지 못해 갱단에게 손가락 두 개를 잘렸다.
 d. 그후 이스라엘왕국은 아시리아에게 정복되고, ..

(16a)의 ‘FBI에게’는 주인공 안젤라가 전송하는 이메일을 받는 전달 행위의 상대가 된다. (16b)의 ‘조선에게’ 또한 주어인 일본으로부터 개항하기를 요구 받는 상대이다. (16c)의 ‘갱단에게’는 의미구조에서 주어인 ‘바비(손 팬)’의 손가락을 자르는 행위를 하는 행위주이며, 통사구조에서 주어로 나타난 ‘바비(손 팬)’는 갱단에게 손가락을 잘리는 피동주가 된다. (16d)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장에서 ‘아시리아에게’는

이스라엘왕국을 정복하는 행위의 주체로 해석된다.

- (17) a. 그러나 언론은 강자 특히 집권세력에게 유리한 사건을 과장하고 불리한 사건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b. 휴식은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체력이 소모된 LG에게 더욱 꿀맛 같다.

(17a)의 ‘집권세력에게’는 언론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점’이 된다. (17b)의 ‘LG에게’는 휴식이 꿀맛과 같다고 느끼는 주체이다. ‘집단명사+에게’ 중에는 이처럼 ‘판단의 기준점’이나 ‘심리·지각 작용의 주체’로서 해석되는 용례도 있는데, 빈도수도 적고 술어의 유형도 제한되어 있어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집단명사는 유정물 체언과 무정물 체언의 경계 지대에 놓인 범주로서, 조사 ‘에게’와 ‘에’의 연결에 있어서 불규칙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16)과 (17)의 조사 ‘에게’는 ‘에’로 바꾸어 써도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17b)의 경우에는 다른 예들과 달리 조사 ‘에게’를 ‘에’로 바꾸어 쓴 문장이 그다지 자연스럽지 않다. ‘꿀맛 같다’와 같이 무엇인가를 지각하는 행위는 유정물 중에서도 보다 고차원적인 존재인 사람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의 논의와 관련하여 집단명사에 조사 ‘에’가 연결된 예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술어와의 결합 관계에서 ‘NP에’가 행위나 작용의 ‘상대’ 혹은 ‘행위주’로 분석되는 예들에서는 조사 ‘에’를 ‘에게’로 바꾸어도 대체로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아래의 (18)이 그에 해당되는 예이다.

- (18) a. 암팩스(Ampex)는 VCR기술을 일본기업에(/일본기업에게) 팔았다.
 b. 그동안 서유럽은 한목소리로 미국에(/미국에게) "아니오

"(No)라고 말할 수 없었다.

- c. 결국 로마에(/로마에게) 격렬하게 저항하게 되죠.
- d. 한국음식료품도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중소식품업체에(/중소식품업체에게) 생산을 맡기기로 했다.
- e. .. 중국 상해에서 북한외교관 2명이 아편밀매 혐의로 중국 공안당국에(/중국 공안당국에게) 검거된 것이 좋은 예이다.
- f. ..언론은 .. 북한이나 공산국가에(/공산국가에게) 불리한 내용은 과장하고 유리한 내용은 축소한다.

(18a)의 ‘일본기업에’는 돈을 주고 암팩스로부터 VCR기술을 전달 받는 매매의 상대가 된다. (18b)의 ‘미국에’는 발화 술어의 논항으로, ‘아니오(No)’라는 발화 내용을 전달 받는 의사 소통 행위의 상대가 되고 있다. (18c)의 ‘로마에’는 힘이나 억압에 굽히지 않고 그에 맞서서 저항한다는 주체의 태도가 표명되는 상대이다. (18d)의 ‘중소식품업체에’는 사동 술어 ‘맡기다’와의 결합 관계에서 생산을 맡도록 시킴을 당하는 상대로서 해석된다. (18e)의 ‘중국 공안당국에’는 북한외교관을 검거하는 행위주이다. (18f)의 ‘공산국가에’는 불리하거나 유리하다고 가려서 정하는 판단 행위의 기준점이 되는 대상이다.

그러나 ‘NP에’가 ‘주체가 지향하는 도달점’이나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 고정된 공간’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에’의 연결만 가능하며, 조사 ‘에게’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19)(a,b)가 그것이다.

- (19) a. 군대에(/*군대에게) 있을 때 면허증 뺏어요.
- b. 배낭을 메고 인도에(/*인도에게) 갔을 때였다.
- c. 그러나 신생 동티모르에는(/동티모르에게는) 이러한 장점을만 있는 것은 아니다.
- d. 다시 한번 가산전자에(/가산전자에게) 기회가 왔다.

(19)(a,b)의 ‘군대’와 ‘인도’도 집단명사로 분류될 수 있는 예들이다. 그러나 같은 집단명사라도 (18)의 예들에 나타난 ‘NP에’에는 쌍방향적 행위나 작용에 바탕한 ‘상대’ 혹은 ‘행위주’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비해, (19)(a,b)의 ‘NP에’는 ‘장소’ 그 자체로서의 의미만을 가진다. 따라서 (19)(a,b)에서는 조사 ‘에’를 ‘에게’로 바꾸어 쓸 수 없다. 그러나 (19)(c,d)에서는 가능하다. (19a)의 ‘군대에 있다’는 ‘군대에 머무른다’는 소재나 존재의 의미이며, ‘군대’는 단순한 ‘장소’의 의미만 가진다. (19c)의 ‘동티모르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는 ‘동티모르가 이러한 장점들을 가진다’는 소유 혹은 내재의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서의 ‘동티모르’는 장점을 가지는 소유의 주체가 되며, 조사 ‘에게’와 바꾸어 써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19b)와 (19d)는 둘 다 ‘NP에’가 이동 동사와 결합한 유형이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 (19b)의 ‘인도에 가다’는 ‘인도라는 목표 지점을 향하여 비행기나 도보 등의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옮겨 간다’는 이동의 의미가 된다. 이때의 ‘인도에’는 주체의 도달점인 ‘장소’의 의미만을 가진다. 그러나 (19d)의 ‘가산전자에 기회가 오다’는 ‘가산전자에 기회가 생기거나 나타나다’라는 의미이므로 단순한 이동의 의미는 아니다. ‘가산전자에’는 기회의 도달점인 동시에 어떤 계기를 통해 기회를 가지게 되는 주체로서 해석된다. 이 경우에는 ‘가산전자에’를 ‘가산전자에게’로 바꾸어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19)(c,d)의 ‘동티모르에 장점이 있다’와 ‘가산전자에 기회가 오다’는 소유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아래와 같이 ‘A가 B가 있다/A가 B를 가지다/A의 B’와 같은 문장 구조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20) a. 동티모르가 장점이 있다./동티모르가 장점을 가진다. / 동티모르의 장점
 b. 가산전자가 기회가 있다./가산전자가 기회를 가졌다. / 가산전자의 기회

집단명사는 유정물과 무정물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며, 따라서 조사 ‘에게’와 ‘에’의 선택 또한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때의 ‘에게’와 ‘에’의 선택은 집단명사를 선행명사구로 하는 ‘NP에게’ 혹은 ‘NP에’가 문장 술어와 맺는 관계에서 어떤 의미 역할을 가지는가 하는 것에도 영향을 받는다. ‘NP에게’ 혹은 ‘NP에’가 술어와의 결합 관계에서 행위나 작용의 ‘상대’ 혹은 ‘행위주’로 해석될 때에는 대체로 ‘에게’와 ‘에’ 어느 쪽이 연결되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그러나 이동 동사나 존재·소유 동사를 술어로 하여 ‘도달점’ 혹은 ‘소재지’와 같은 ‘장소’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에’만이 선택되며 ‘에게’는 연결되지 않는다. 조사 연결에서의 이와 같은 특징을 볼 때 집단명사의 유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를 선행요소로 하는 ‘NP에게’ 혹은 ‘NP에’가 술어와의 결합 관계에서 가지는 ‘상호성’이나 ‘행위주성’과 같은 요소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3.4. 무정물 체언

조사 ‘에게’가 연결된 선행명사구 중에는 무정물 체언도 있다. 분석 대상이 된 전체 3,591개의 용례 중 17개가 무정물 체언으로 분류된 것들인데, 아래의 (21)이 그에 해당된다.

- (21) a. 흰색은 와이셔츠에게 거부당함으로써 와이셔츠의 색깔이 된다.
 b. 그래도 의기양양한 머리는 꼬리에게 늘 이렇게 으스댄답니다.
 c. 칠성당을 짓고 복두칠성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한다.
 d. 반장, 계단을 흘끔거리며 201호에게 계속 눈치 준다.

(21a)에서는 옷의 한 종류인 ‘와이셔츠’가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인간적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21b) 또한 동물의 몸의 일부본인 ‘꼬리’를 사람처럼 남에게 으스댈 수 있는 존재로 표현한 것이다. 이 두 예는 모두 의인화에 해당한다. 분석된 17개 중 8개가 의인화의 용법이었다. (21c)의 ‘북두칠성’은 밤하늘에 뜬 별 자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신성을 가진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북두칠성’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예로서 ‘하늘에게 기도했다’가 있다. 여기에서의 ‘하늘’ 또한 땅 위에 넓게 펼쳐진 자연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사람의 기도를 들어 주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21d)는 아파트의 호수로 그 호수에 사는 사람을 빗대어 가리킨 예이다. (21)(c,d)의 ‘북두칠성, 201호’는 단어 본래의 의미로는 무정물 체언이지만, ‘하느님’이나 ‘201호에 사는 사람’의 환유(換喻, metonymy)적 표현으로서 속뜻에는 유정의 속성을 함의하고 있다. 한편, 아래의 (13)은 의인이나 환유로서 해석되지 않는 예들이다.

- (22) a. 그림 II-23과 같이 마그네슘은 전자를 수소 이온에게 주고 자신은 마그네슘 이온(Mg^{2+})으로 되어 물에 녹아 들어가며, ..
- b. 북한강 전역이 거의 유원지화돼 있는 것은 북한강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는지 모르지만, 길게 보아 북한강에게 결코 좋은 일이 못되는 터다.
- c. 건축 계획상 북향에는 서재나 취미실 등을 두라고 했는데, 책, 그림, 오디오 혹은 와인 등 식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들 에게 직사광선은 좋지 않기 때문이다.

(22a)의 수소나 마그네슘 이온은 분명 무정물 체언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유정물처럼 운동성을 가진다. 전자를 서로 교환하거나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인간이나 동물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운동성과는 달리 단순한 화학 반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정물의 조작이 아닌 내부적인 동인에 의해 전자의 교환이라는 운동성 작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유정물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22)(b,c)의 ‘북한강에게’와 ‘모든 물품들에게’의 경우는 왜 조사 ‘에게’가 연결되었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없다. ‘좋다’라는 술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책에게 직사광선은 좋지 않다./*그림에게 직사광선은 좋지 않다.} 등 다른 무정물 체언과는 결합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일관된 설명이 되지 않는다.

4. 「에」에 선행하는 명사구의 분석

이 절에서는 ‘NP에’ 용례를 대상으로 해당 구성의 특징 및 특성을 분석한다. 조사 ‘에’에 선행하는 명사구 중 무정물 체언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선행명사구의 유정성과 조사 선택의 상호관련성을 밝히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유정물 체언+에’의 구성을 중심으로 분포 조사 및 연결 관계상의 의미·통사·문체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28,998개의 ‘NP에’ 용례 중 조사 ‘에’ 앞에 유정물 체언이 나타난 것은 1,072개이며, 이는 전체 용례에서 3.7%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다.

용례 분석 결과 유정물 체언에 조사 ‘에’가 연결된 예는 크게 다음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술어의 의미 속성 혹은 술어와 논항의 결합 관계와 같은 의미·통사적 환경에 지배받아 무정물 체언은 물론이고 유정물 체언 뒤에도 언제나 ‘에’가 연결되는 경우와 문체적 특징 등에 의해 유정물 체언 뒤에 특수하게 ‘에’가 사용된 경우의 두 가지가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번째를 의미·통사적 조건, 두 번째를 문체적 조건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우선 의미·통사적 조건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3) a. 나는 아직 그분에(/*그분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 b. 아무리 .. 권세와 재산이 있고 팔방미인이라도 술 마시는 사람은 미련한 자에(*미련한 자에게) 속한다.
- c. .. 어스킨 보울스가 97년 1월 백악관 비서실장에(/*비서실장에게) 임명됐다.
- d. 특히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쇼펜하우어에(*쇼펜하우어에게) 미치도록 빠졌다!

(23a)의 ‘그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굳어진 결합으로서 유정물 체언이든 무정물 체언이든 언제나 조사 ‘에’를 취한다. (23b)의 ‘미련한 자’는 술어 ‘속하다’와의 결합 관계에서 주어인 ‘술 마시는 사람’이 포함되는 어떠한 부류 일반을 의미하고 있다. 이처럼 술어가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유정물 체언과 결합할 때에도 조사 ‘에’가 연결된다. (23c)의 ‘비서실장’은 다의어로서 비서실장을 맡은 사람의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비서실장이라는 직위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 문장의 ‘비서실장’은 후자에 해당되며, 이처럼 ‘비서실장, 대통령, 챔피언’ 등의 명사가 직위나 자격이라는 무정물 체언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조사 ‘에’가 연결된다. (23d)의 ‘쇼펜하우어에 빠졌다’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에게 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쇼펜하우어의 작품 세계에 반해서 몰두하게 되었다’라는 환유적 의미이다. 이와 같이 의미·통사적인 조건은 ‘굳어진 결합의 경우, 술어의 의미 속성에 의한 경우, 선행명사구가 다의어로서 무정물 체언으로 해석되는 경우, 선행명사구가 환유적으로 쓰인 경우’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3)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모두 조사 ‘에게’가 연결되면 비문이 된다.

다음으로는 문체적 조건이 있다. 신문이나 잡지의 제목 혹은 기사 등에서 유정물 체언 뒤에 특수하게 조사 ‘에게’ 대신 ‘에’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이 글에서는 문체적 조건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자

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기술하겠다.

‘유정물 체언+에’의 용례 중에는 앞에서 설명한 유정성의 위계와 관련하여 위계상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사 ‘에게’와 ‘에’의 선택에 혼동을 보이는 부류들이 존재한다. 유사인간이나 동물명사와 같이 사람이 아닌 유정물 체언의 예가 18개, ‘대중, 민족’ 등 비지시적 용법이 기본이 되는 ‘사람 보통명사-집단’의 예가 16개 나타났다. 이들은 다른 변수나 조건이 아닌 유정성 위계 내에서 설명되는 예들이므로 하나의 특정한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들을 제외한 1,038개의 용례를 바탕으로 ‘유정물 체언+에’ 구성의 분포 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형(type)			빈도 (token)	비율 (%)
의미 통사적 조건	‘굳어진 결합’의 경우		768	74.0%
	술어의 의미 속성에 의한 경우		44	4.2%
	선행명사구가 다의어로서 무정물 체언으로 해석되는 경우	지위/자격	105	10.1%
		조직	33	3.2%
		기타	1	0.1%
	선행명사구가 환유적으로 쓰인 경우		3	0.3%
의미 통사적 조건 합계			954	91.9%
문체적 조건	신문이나 잡지의 제목인 경우		9	0.9%
	술어가 승패를 나타나는 경우		11	1.1%
문체적 조건 합계			20	1.9%
기타(특정 조건으로 일반화가 어려운 예들)			60	5.8%
분류 불가			4	0.4%
합계			1,038	100.0%

[표 2] ‘유정물 체언+에’ 구성의 유형 분포

한편, 아래의 두 경우도 유정물 체언 뒤에 조사 ‘에’가 연결되는 예이다.

- (24) a. 충주댐이 완성된 뒤로 낚시꾼에, 등산객에, 온천객들이 몰려
들어 복새를 이루는 것도 사실이다.
b. 부우연 입쌀밥에, 얼큰한 풋김치에, 구수한 된장찌개에, ..
c. 그 아비에 그 아들이다.¹²⁾

(24)(a,b)는 모두 어떤 대상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용법인데, ‘낚시꾼, 등산객’과 ‘입쌀밥, 풋김치..’에 모두 조사 ‘에’가 쓰이고 있다.¹³⁾ 이처럼 ‘에’가 ‘열거’의 용법을 가지는 경우에는 무정물 체언뿐만 아니라 유정물 체언의 뒤에도 언제나 조사 ‘에’가 연결된다. (24c)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것인데, 속담과 같은 특수한 관용 표현의 예이다.

4.1. 의미·통사적 조건

4.1.1. 굳어진 결합

첫 번째 유형은 아래의 ‘NP에 관한’, ‘NP에 따르면’, ‘NP에 비해’, ‘NP에 의해서’와 같이 ‘대하다, 관하다, 따르다, 비하다, 의하다’가 몇몇 제한된 활용형으로만 쓰이면서 ‘NP에’ 논항을 취하는 경우이다.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0:161)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문법화 과정에 있는 동사들이라고 하였으며, 이익섭·임홍빈(1983:152)에서는 특수한 표현이라고 하였다.

- (25) a. 이 글은 화가 장욱진에 관한 기록이다.
b. 김سن박사에 따르면 김군도 .. 수술받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것.

12) 이 예는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0:161), 이익섭·임홍빈(1983:152)에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 사용한 말뭉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13) 열거의 의미를 가지는 ‘에’는 사전에 따라서 접속 조사로 처리되기도 한다. 이는 조사 ‘에’에 고유한 용법이므로 본 연구의 일차적인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c. 난 친구들에 비해 비교적 일찍 결혼했다.
- d. 라디오·TV·신문·잡지는 모두 광고주인 스폰서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이 연구에서 사용한 말뭉치에서는 ‘NP에 {관해서/관해/관하여/관한}, NP에 {대해서/대해/대하여/대한}, NP에 {따라서/따라/따르면/따른다면}, NP에 {비해서/비해/비하여/비하면/비한다면}, NP에 {의해서/의해/의하여/의하면}’ 등의 결합 형태가 나타났다 이밖에도 아래의 (26)에 나타난 형태들 또한 굳어진 결합의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들이다.

- (26) a. 유모차를 타고 엄마와 함께한 어린 아기로부터 유치원생, 초등학교, 중학생, 60대의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모여 만든 무대였다.
- b. .. 황주량 등이 중심이 되어 태조로부터 목종에 이르는 7대 실록을 완성하였다.
- c. 정명원, 김홍집에 이어 위재영이 등판했다.
- d. 박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 이씨에 앞서 증인 신문에 나선 이부영 김영수 씨를 상대로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 지연 전술을 쓰기도.
- e. 영춘에는 온달에 얹힌 땅이름이 많고 얘기가 많다.

(26)(a,b)는 동사 ‘이르다’가 ‘NP1(로)부터 NP2에 이르기까지’ ‘NP에 이르는’의 꼴로 주로 사용되어 일정한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26c)는 ‘잇다’가 ‘NP에 {이어/이어서/이은}’의 형태로 나타나 순서상 NP의 뒤에 잇따라 나타난다는 의미가 된다. (26d)의 ‘이씨에 앞서’는 순서상 이씨보다 먼저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26e)의 ‘온달에 얹힌’은 ‘무엇인가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NP와 관련된’이라는 의미로서, 이처럼 관련된다는 의미일 때는 ‘NP에 얹힌’의 형태로만 나타난다.

4.1.2. 술어의 의미 속성에 의한 경우

두 번째로는 술어의 의미 속성에 의한 것으로서, 특정한 의미 부류에 속하는 몇몇 용언들은 선행명사구가 유정물이든 무정물이든 언제나 ‘NP에’만을 취한다. ‘포함 관계, 한정 관계, 비교·비유 관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선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부류로 (28)의 예들이 있다.

- (27) a. 그러나 화가는 .. 세상 사람이 흔히 말하는 이른바 기인에 든다.
 b. .. "이 경우 정몽구 회장은 정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c. 아무리 .. 권세와 재산이 있고 팔방미인이라도 술 마시는 사람은 미련한 자에 속한다.
 d. 오히려 문명 예찬론자에 가깝죠.
 e. 그런데 현실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70%정도가 과세특례자에 해당된다.

(27)(a-c) 문장의 술어인 ‘들다, 포함되다, 속하다’는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술어이다. 이 경우 선행명사구가 유정물인 경우에도 조사 ‘에게’가 아닌 ‘에’가 연결되며, 조사 ‘에’를 ‘에게’로 바꾸어 쓰면 비문이 된다. 또한 조사 ‘에’의 선행명사구 ‘기인’, ‘정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 ‘미련한 자’는 모두 문장의 주어가 속하게 되는 어떤 ‘부류 일반(전체로서의 유(類))’을 나타내는 비지시적 용법으로 해석된다.

(27)(d,e)의 ‘가깝다, 해당되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유형이 된다. (27d)의 ‘문명 예찬론자에 가깝다’는 문명 예찬론자의 부류에 속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포함 관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27e)의 ‘해당되다’는 일반과세자 중 70% 정도가 선행명사구인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들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이 역시 포함 관계로 해석된다. 또한 아래의 (28)도 포함 관계로 볼 수 있는 예들이다.

(28) a.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던 ‘신’에는 12신이 있는데..

b. 친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작례)

c. 뉴런에는 기능에 따라 감각 뉴런, 운동 뉴런, 연합 뉴런이 있다.

d. 큰댁 머슴에, 고행이 께 멀다는, 이대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e. 백가 성 가진 사람에 장기 잘 두는 이가 있소.¹⁴⁾

f. 요즈음 사람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다.¹⁵⁾

(28)은 모두 ‘B에 A가 있다’의 문형을 가지며, 여기서의 B는 부류 전체, A는 B에 속하는 일부로서 ‘B>A’의 포함 관계로 해석된다. 여기서의 술어 ‘있다’는 ‘어떤 범위나 전체에 무엇이 포함되다’라는 의미이며, 앞에서 살펴본 ‘속하다, 포함되다, 들다’와 같은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28c)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경우에는 ‘에’의 선행명사구가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모두 조사 ‘에’를 취하게 된다. 여기서 선행명사구 ‘신, 친구, 뉴런, 큰댁 머슴, 백가 성 가진 사람, 요즈음 사람’은 모두 ‘부류 일반이나 전체’로 해석된다.¹⁶⁾

14)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0:160)재인용.

15) 이익섭·임홍빈(1983:152) 재인용.

16) 이와 같은 사실은 박양규(1972:13-14)의 서술어 ‘있다’의 문형 분석에서도 지적된

한편, 수준이나 정도가 어떤 선을 넘지 못하고 미약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한정’의 의미를 가지는 ‘불과하다’ 류의 술어류 역시 선행명사구의 유정성과 상관 없이 언제나 ‘NP에’를 취한다.

- (29) a. 하녀에 불과했던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 "그후로도 오래 (ever after) 행복하게 살았다"로 끝나는 것이다.
- b. 남이 보면 나 역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 나이였다.
- c. 하지만 그가 주변의 칭찬에 머물렀다면 단지 ‘일류기술자’에 그쳤을 것이다.
- d. 퇴직자에 한해 위로금이 지급되며 원하는 경우 앞으로 2년간 무급 휴가 사원으로 고용을 유지시켜주는 쪽으로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
- e. 또한 종교인이나 지식인에 한정되지 않고 전직 대통령과 전 대통령후보 등 중요한 야당 정치인까지 ‘선언서’에 서명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29)(a-c)의 ‘불과하다, 지나지 않다, 그치다’가 그 예이다. ‘범위 한정’의 의미를 가지는 (29)(d,e)의 ‘한하다, 한정하다’ 또한 언제나 ‘NP에’를 논항으로 취하여 나타난다.¹⁷⁾ ‘한정’의 의미 관계를 가지는 ‘NP에 VP’에서도 선행명사구는 대체로 ‘부류 일반(전체로서의 유(類))’을 나타내는 비지시적 의미로 해석된다.

‘비교’ 혹은 ‘비유’의 의미를 가지는 몇몇 술어 또한 선행명사구가

바 있다. 박양규(1972:13-14)에 의하면 ‘B에 A가 있다’의 문형을 가지는 ‘있다2’는 A가 B의 한 종류임을 나타내며, B의 개념의미는 류(類)라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a)사람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 b)집에도 한옥과 양옥이 있다./ c)물 마시는 그릇(중)에 컵이라는 것이 있다./ d)나무 性을 가진 사람(중)에 아는 이가 있는냐?’ 등을 들고 있다. (c,d)와 같이 조사 ‘에’ 사이에 ‘중, 가운데’ 등의 접사가 개재되는 일도 있다고 한다.

17) 이 경우에는 조사 ‘에’를 ‘에게’로 바꾸어 써도 비문이 되지는 않는 듯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말뭉치에서는 해당 용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정물인 경우에도 조사 ‘에’가 선택된다. (30)의 ‘버금가다, 견주다, 비유되다, 비유하다, 못지 않다’가 그것이다.

- (30) a. 60년대 안토니오니에 버금가는 연출력 ..
 b. 내 어머니의 근면도 아버님에 못지 않으셨다.
 c. 작은 키에 부지런히 움직임, 예리한 패스, 정확한 킥으로 ‘독일병정’ 헤슬러에 비유되면서 ‘울산의 헤슬러’란 애칭을 얻고 있다.
 d. 코스모스는 여성적인 꽃 , 특히 가녀린 여성에 비유되는 꽃임에 틀림없지만 ..

(30a)의 ‘버금가다’는 ‘견주어 보아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동등하다’는 의미인데, 선행명사구가 ‘안토니오니’라는 유정물 체언임에도 불구하고 ‘NP에’ 논항과 결합되어 있다. (30)(b-d)도 마찬가지이다.

4.1.3. 선행명사구가 무정물 체언으로 해석되는 경우

세 번째로 선행명사구가 유정물 체언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무정물 체언의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다의어인 경우가 있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 (31) a. 이에 오토 황제는 .. 레오 8세(963 ~ 965)를 교황에 임명하였다.
 b. 이날 선거에서는 .. 이교수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의장에 당선됐다.
 c. 서울 남팀이 2002~2003 KAT시스템배 한국바둑최강전 통합 챔피언에 올랐다.
 d. 게다가 하이라이트인 디스코왕에 도전하는 부분이 후반에

급하게 다뤄져 ..

위의 (31)에 나타난 ‘교황, 의장, 챔피언’ 등은 {교황에게 성배를 건넸다. / 의장에게 건의한다. / 챔피언에게 금메달을 수여하다}와 같이 ‘에게’ 논항과 결합하여 쓰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의 ‘교황, 의장, 챔피언’은 모두 그 직위를 가진 한 명의 특정한 개인을 나타낸다. 그러나 (31)의 ‘교황에 임명하다, 의장에 당선되다, 챔피언에 오르다’에서의 ‘교황, 의장, 챔피언’은 특정한 개별 인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게 되거나 가지게 되는 직위나 자격을 가리킨다. (31e)의 ‘디스코왕에 도전하다’ 또한 ‘디스코왕에게 도전하다’로도 쓸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 ‘디스코왕에게 도전하다’는 현재 디스코왕의 자격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 도전한다는 의미이며, ‘디스코왕에 도전하다’는 디스코왕이라는 타이틀에 도전한다는 의미가 된다.

직위나 자격을 나타내는 선행 체언으로는 ‘CEO, MVP, 감사관, 교육감, 교황, 국가주석, 국회의원, 국회의장, 대사, 대통령, 동우회장, 득점왕, 디스코왕, 부심, 부의장, 부회장, 비서실장, 사장, 서기관, 수상, 수상자, 신인왕, 실장, 어시스트왕, 올해의인물, 원장, 의장, 이사장, 장원, 주심, 주지사, 차관보, 차장, 챔피언, 천하장사, 총리, 총무원장, 총수, 총장, 학생회장, 학장, 회장, 2관왕 ..’ 등이 있다. 이들은 ‘해당 직위나 자격을 가진 사람’과 ‘직위 혹은 자격’이라는 다의적 의미를 가지는 명사이다. ‘사람’이라는 유정물 체언으로 해석될 때는 조사 ‘에게’가 연결되지만 ‘직위 혹은 자격’이라는 무정물 체언으로 쓰일 경우에는 조사 ‘에’가 연결된다.

직위나 자격을 나타내는 선행명사구는 그 의미상 결합되는 술어도 일정한 유형으로 제약된다. ‘내정되다, 당선되다, 도전하다, 등극하다, 발탁되다, 뽑히다, 선발되다, 선임되다, 선임하다, 선정되다, 선출되다, 오르다, 임명되다, 임명하다, 지명되다, 추대하다, 취임하다..’가 그것이다.

이 외에도 ‘경찰, 미군, 의병..’ 등 경찰관이나 미국 군인 등 그 조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와 조직 그 자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 부류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사람 보통명사 부분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소략한다.

4.1.4. 선행명사구가 환유(換喻, metonymy) 적으로 사용된 경우

마지막으로 환유법에 의해 유정물 체언에도 조사 ‘에’가 연결된 예들이 있다. ‘나는 요즘 셰익스피어를 공부하고 있다.’에서의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작가의 이름에 빗대어 사용한 환유적 표현이다. 아래의 (32)에 나타난 ‘유정물 체언+에’ 구성 또한 이러한 환유적 표현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 (32) a. 특히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쇼펜하우어에 미치도록 빠졌다!
 b. ..데카르트의 사상 - 이 이상의 근원은 이미 플라톤에 있지만 -을 굳게 신봉하고 있었다.
 c. 선우는 갑자기 그날 집에 일이 생겼고, 고흐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찰리와 우리가 빠지고 나니 그녀와 혁진만 남았다.

(32a)의 ‘쇼펜하우어에 빠졌다’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에게 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쇼펜하우어의 작품 세계에 반해서 몰두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32b)의 ‘플라톤’도 문장의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플라톤의 사상’이라는 의미가 된다. (32c)의 ‘고흐’ 역시 ‘고흐의 작품 세계(혹은 그림)’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32)에 나타난 고유명은 개별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나 사상 등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구체물이나 속성을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2. 문체적 조건

4.2.1. 신문이나 잡지의 제목인 경우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혹은 사설·칼럼 등의 제목에서는 유정물 체언 뒤에도 조사 ‘에’가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 (33) a. 대법, 강기훈 씨에(/강기훈 씨에게) 3년형... 재야 항의 시위
 b. 교원들에(/교원들에게) ‘못매’맞은 교육정책
 c. 새 일본 총리에(/새 일본 총리에게) 당부한다

(33)의 ‘강기훈 씨, 교원들, 새 일본 총리’는 모두 유정물 체언이지만 ‘에게’가 아닌 ‘에’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쓰임은 모두 신문이나 잡지의 제목에서 나타나며, 조사 ‘에게’ 대신에 ‘에’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짧고 압축적인 메시지로 독자들의 눈길을 끌어야 하는 헤드라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하나의 장치가 신문이나 잡지 제목의 문체로서 정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2.2. 술어가 ‘승패’를 나타내는 경우

한편, 아래의 (34)와 같이 승패와 관련된 사태를 서술하는 문장에서는 유정물 체언 뒤에도 조사 ‘에’가 연결되는 예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쓰임 역시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등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또한 첫 번째의 신문이나 잡지의 헤드라인의 경우와 비슷한 문체적 특징으로 분류해 두고자 한다.

- (34) a. TV시사평론가 류캐년(57)은 비록 дол 후보에(/дол 후보에게) 3% 차이로 졌지만 ..

- b. 62년 리처드 닉슨을 꺾고 연임했으나 로널드 레이건에(/로널드 레이건에게) 패해 67년 물러났다.
- c. 현대 전준호가 한국시리즈 톱타자 대결에서 LG 유지현에(/유지현에게) 크게 앞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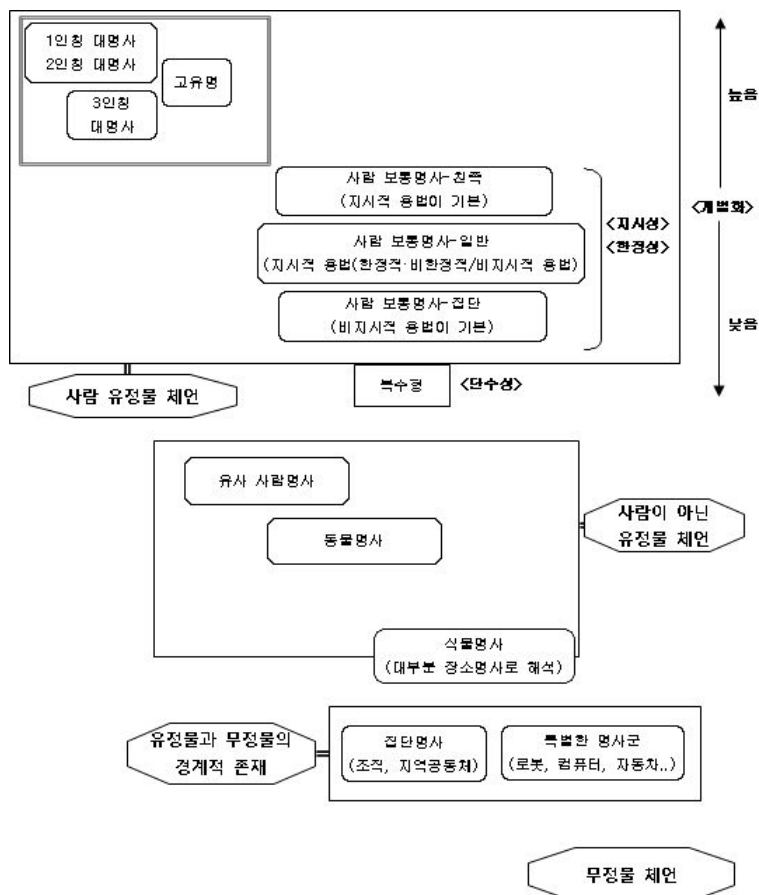
(34) ‘돌후보, 로널드 레이건, 유지현’은 유정물 체언이지만 모두 조사 ‘에’를 취하고 있다. 해당 문장의 술어로는 ‘지다, 패하다, 패배하다, 완패하다, 이기다, 승리하다, 신승하다, 역전승하다, 역전승을 거두다, 앞서다, 뒤지다..’가 나타난다.

5. 선행명사구의 유정성과 조사 「에게/에」 선택의 상호관계

선행명사구의 유정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선행명사구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의미적·형태적 특징이다. ‘유정물 체언인가, 무정물 체언인가’, ‘사람 유정물 체언인가, 동물명사인가’, ‘사람 유정물 체언 중에서도 고유명인가, 인칭대명사인가, 보통명사인가’, ‘대명사 중에서 1인칭인가, 2인칭인가, 3인칭인가’, ‘보통명사 중에서 친족명인가, 일반 보통명사인가’, ‘단수형인가, 복수형인가’ 등이 그것이다. 두번째로 담화 맥락상에서 성립하는 해당 명사구의 의미해석적 특징이 있다. 이는 특히 사람 보통명사의 해석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 3.1.3절에서 살펴본 지시적 용법(한정적/비한정적)과 비지시적 용법이 그것이다. 이처럼 선행명사구의 유정성 판단에는 체언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내재적인 의미 속성뿐만 아니라 담화 맥락 상에서의 해석상의 특징, 즉, 지시성이나 한정성 등의 요소도 관련이 된다. ‘유정성 위계’라는 것은 하나의 척도에 따른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얹혀 있는 보다 복합적인 구조인 것이다.

이 글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가정은 ‘유정성 위계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체언일수록, 즉 체언의 유정성의 정도가 클수록 조사 ‘에게’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의 체언 범주에 대한 유정성 위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에게’와 ‘에’에 선행하는 요소에 대한 양적인 분포 조사와 각 용례에 대한 의미 분석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유정성 위계를 다음과 같이 세워 보고자 한다.



[그림 1] 조사 ‘에게/에’의 연결 관계를 통해서 본 한국어 체언의 유정성 위계

유정성 위계와 관련이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문자 그대로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유정성’이다. 이는 유정성을 판단하는 주체, 즉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개체를 보다 유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람 유정물 체언 > 사람이 아닌 유정물 체언 >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적 존재 > 무정물 체언’의 위계가 가정된다. 사람 유정물 체언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조사 ‘에게’가 연결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유사 사람명사나 동물명사와 같은 ‘사람이 아닌 유정물 체언’과 집단명사, 식물명사 등의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적 존재’가 되는 체언 부류는 조사 ‘에게’와 ‘에’의 선택에 있어서도 불규칙하고 일관되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관련이 되는 요소는 ‘개별화’이다. 지사 표현에 내재하는 의미가 지시 대상이 되는 한 명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람에 가까워질수록 개별화의 척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개별화의 척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정성 위계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된다. 사람 보통명사와 달리 인칭대명사나 고유명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체적이고 특정한 개인을 그 자체로서 지시하는 것이다. 사람 보통명사는 담화 맥락에서 한 개인을 한정적으로 지시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사회나 가족 관계에서 가지는 어떤 역할이나 기능, 즉, 그 사람 전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여러 속성 중의 일부만을 가리키게 된다. 이처럼 인칭대명사와 고유명은 사람 유정물 체언 중에서도 개별화의 척도가 가장 높은 부류이며, 4절에서 살펴본 통사적 조건과 같은 변수가 없으면 조사 ‘에게’가 선택된다.

‘개별화 척도’는 또한 ‘지시성’ 혹은 ‘한정성’과 관련하여 사람 보통명사의 유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 보통명사는 실세계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개체를 가리키는 ‘지시적 용법’과 전체로서의 유(類)를 의미하는 ‘비지시적 용법’의 두 가지 쓰임을 가진다. 지시적 용법은 특정한 개인이건 불특정한 개인이건 실세계에 존재하는 지시체를 가지므로 비지시적 용법보다 개별화 척도가 높으며, 따라서 유정

성의 정도도 더 큰 것으로 간주된다. 사람 유정물 체언 중에서 ‘민중, 대중, 청중, 민족’ 등 집단을 가리키는 보통명사의 경우 일차적으로 비지시적 용법으로 해석되며, 유정성의 정도가 낮은 이러한 명사 부류는 조사 ‘에게’와 ‘에’의 선택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나타난다. ‘지시적 용법’은 특정한 개인을 지시하는 ‘한정적 용법’과 해당 부류에 속한 불특정의 누군가를 지시하는 ‘비한정적 용법’의 두 가지로 나뉜다. 선행명사구 앞에 한정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비한정적 의미는 사라지고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한정적 의미로만 해석된다. ‘한정성’이라는 요인에 의해 ‘개별화’가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한정적 용법은 ‘개별화’가 회색되어 ‘그 부류에 속한 불특정의 어떤 사람’을 가리키게 된 것이다. 유정성의 위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후자보다는 전자인 한정적 용법이 더 유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수성(singularity)’ 또한 ‘개별화’와 상호작용하여 체언의 유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복수형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닌 개인들 다수를 가리킨다. 복수 표지에 의해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특정 개인이 비개인화되어 불특정의 다수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복수성은 개별화를 회색시키며, 개별화 척도가 낮아짐으로써 유정성의 정도 또한 약화된다. 이 또한 유정물 체언임에도 조사 ‘에게’가 아닌 ‘에’가 선택되는 하나의 변수로서 작용하는 요소가 된다.

한국어의 유정성 위계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유정성 위계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체계로 성립된다. 이를 통해 ‘유정성’이라는 의미 속성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 고유하게 나타나는 특징들도 존재한다.

인구어를 대상으로 한 유정성 위계에서는 인칭대명사가 사람 고유명보다 더 유정적인 범주로 상정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분포를 통해서건 의미적 분석을 통해서건 인칭대명사가 고유명보다 유정성 위계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유정성을 위계적인 범주로 파악했던 연구들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1인칭 대명사(화자)와 2인칭 대명사(청자 혹은 수신자)를 유정성 위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있다. 화자와 청자는 어떤 발화사건의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수행자로서 실제 발화에서 1인칭과 2인칭 대명사라는 언어학적 형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 ‘에게’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분포상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표1>에 따르면 조사 ‘에게’에 선행하는 체언 중 인칭대명사는 전체의 24.4%로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리고 이 중 1인칭 대명사가 전체의 반 이상이 되는 14.2%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인칭 대명사와 관련해서는 조사 ‘에게’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2인칭 대명사는 1.0%로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는데, 이는 한국어 지시 체계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청자를 지칭할 때 2인칭 대명사보다는 고유명이나 직함 등의 보통명사가 선호되는 한국어의 특성으로 인해 2인칭 대명사의 빈도가 낮게 나타났을 것이다. 또한 연구 대상이 된 말뭉치가 문어 말뭉치였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화자와 청자의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는 일상대화 텍스트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빈도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사람 보통명사의 빈도가 높은 것 또한 담화의 직접적인 참여자가 텍스트상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 문어 말뭉치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6. 맺음말

유정성이라는 의미 영역은 격표시(case marking), 어순(word order), 주어 선택(subject selection), 주제화(topicality), 수(number)의 구별, 동사의 일치(agreement) 등 다양한 문법 현상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세계의 여러 언어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된

다.18) 한국어에 대해서는 능동문과 피동문 구성에서의 무생물 주어 제약이 유정성과 관련하여 주로 다루어진 문법 현상이다. 그러나 조사 ‘에게’와 ‘에’의 선택 또한 유정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문법 영역이며,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그다지 연구의 초점이 되지 못했던 선행명사구와 조사 ‘에게/에’의 연결 관계를 중심으로 유정성과 문법 현상과의 상호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NP에게’와 ‘NP에’ 용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해당 조사 형태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관여적인 요소는 ‘유정성(Animacy)’이며, 유정성이 어떤 위계적 체계로 관련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유정성의 위계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조사 ‘에게’가 선택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유정성 위계라는 것은 ‘유정성(좁은 의미에서의)’이라는 하나의 척도에 따른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화(individuation), 지시성(referentiality), 한정성(definiteness), 단수성(singularity)’ 등 여러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다층적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여러 요소들은 조사 ‘에게’와 ‘에’의 선택에 있어서도 관여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 글에 제시된 한국어의 유정성 위계는 유정성과 관련된 여러 문법 현상 중 조사 ‘에게’와 ‘에’의 선택과 관련된 특징을 중심으로 설정한 시안적인 성격의 것이다. 앞으로 주어 선택이나 주제화 등 다른 통사 현상과의 상호 관련 하에 보완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18) Comrie(1989), Klaiman(1988), Croft(1990), Yamamoto(1999) 참조.

참고문헌

- 고영근(2005), “형태소의 교체와 형태론의 범위 - 형태음운론적 교체를 중심으로 -”, 「국어학」46집, 19-52쪽, 서울: 국어학회.
- 김용하(2007), “‘에’”, “‘에게’”, “‘께’”의 교체와 분포 형태론”, 「언어과학연구」43, 71-112쪽, 대구: 언어과학회.
- 김원경(1997), “‘에게’와 격”, 「한국어학의 이해와 전망」김응모 편저(일암 김응모 선생 화갑 기념 논총), 461-475쪽, 서울: 박이정.
- 김원경(1999), “처격조사의 자질연산”, 「국어의 격과 조사」한국어학회, 893-908쪽, 서울: 월인.
- 김은일(2000), “유생성의 문법”, 「현대문법연구」20, 71-96쪽, 서울: 현대문법학회.
- 김진호(2003), “‘NP-에게’구문의 통사적 특징”, 『국어학의 새로운 조명』이광정 편, 287-302쪽, 서울: 역락.
- 김형정(2008), “행위주로서의 ‘에게’논항에 대하여”, 제59회 조선학회 발표 자료.
- 김형정(2009a), “조사 ‘에’와 ‘에게’의 교체 양상 연구”, 제29회 한말연구학회 발표 자료.
- 김형정(2009b), “간접적 객체로서의 ‘NP에게’”, 「한글」285호, 97-130쪽, 서울: 한글학회.
- 박양규(1972), “국어 처격에 대한 연구-결합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국어연구」제27호, 서울: 국어연구회.
- 박양규(1975), “소유와 소재”, 「국어학」3집, 93-117쪽, 서울: 국어학회.
- 박형익(1989), “동사 ‘주다’의 3가지 용법”, 「한글」203호, 145-164쪽, 서울: 한글학회.
- 박형익(1991), “여격 동사”, 「국어의 이해와 인식: 갈음 김석득교수 회갑기념논문집」갈음 김석득교수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엮음, 289-313쪽, 서울: 한국문화사.
- 송복승(1994), “국어의 ‘-에게’구성에 대하여”, 「서강어문」10집, 5-43쪽, 서울: 서강어문학회.
- 안명철(1982), “處格 ‘에’의 意味”, 「관악어문연구」7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45-268쪽, 서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연재훈(1995), “기능-유형 문법에서의 분석과 설명”, 「언어학」제17호, 203-230쪽, 서울: 한국언어학회.
- 연재훈(1996), “국어 여격주어 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의 연구”, 「국어학」28집, 241-275쪽, 서울: 국어학회.
- 유현경(2003), “‘주다’구문에 나타나는 조사 ‘에게’와 ‘에’”, 「한국어학」20집, 155-174쪽, 서울: 한국어학회.
- 유현경(2007), “‘에게’와 유정성”, 「형태론」9권 2호, 257-275쪽, 서울: 형태론학

회.

이기동(1979), “‘주다’의 문법”, 「한글」166호, 159-187쪽, 서울: 한글학회.

이기동(1981), “조사 에와 에서의 기본 의미”, 「한글」173-174호, 9-34쪽, 서울: 한글학회.

이남순(1983), “‘에’와 ‘로’의 통사와 의미”, 「언어」8권 2호, 213-239쪽, 서울: 한국언어학회.

이남순(1983), “양식의 ‘에’와 소재의 ‘에서’”, 「관악어문연구」8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21-355쪽, 서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희정(1988), “‘에’를 중심으로 본 토씨의 의미-‘에’와 ‘고, 를’의 의미비교-”, 「국어학」17집, 153-175쪽, 서울: 국어학회.

최경봉(1996), “명사의 의미 분류에 대하여”, 「한국어학」4권, 11-45쪽, 서울: 한국언어학회.

홍운표(1978), “방향성 표시와 격”, 「국어학」6집, 111-132쪽, 서울: 국어학회.

野間秀樹 (1990) 「朝鮮語の名詞分類-語彙論-文法論のために」 「朝鮮學報」第135輯 1-59頁 天理: 朝鮮學會.

奥田靖雄 (1983) 「に格の名詞と動詞とのくみあわせ」 「日本語文法-連語論(資料編)」 281-323頁 言語學研究會 編 東京: むき書房.

松本泰丈 (2006) 「に格の名詞と形容詞とのくみあわせ」 「連語論と統語論」 16-136頁 東京: 至文堂.

Chafe, W. L. 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mrie, B.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2nd ed. Oxford: Basil Blackwell.

Croft, W. 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ley, W.A.. and R.D. Van Valin, Jr. 1985. "Information Packaging in the Clause." In T. Shopen(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1.: Clause Structure*, pp282-36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ngacker, R.W. 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II: Descriptive Application*.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Mutsumi Yamamoto. 1999. *Animacy and Reference: A cognitive approach to corpus linguistic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Givón, T. 1976.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Givon, Talmy 지음: 이기동 옮김, 1981, 「문법 이해론」, 서울: 범한서적)

Klaiman, M.H. 1988. "Affectedness and control: a typology of voice systems". In
Passive and Voice, Shibatani, Masayoshi (ed.), 25 ff.

원고 접수일 : 2010년 8월 13일

원고 수정일 : 2010년 9월 27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10월 28일

Abstract

The Animacy of the Preceding Noun Phrase and the Choice of 'ege/e'

Kim Hyeong-jeong
(Doshisha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the noun phrase that precedes the particle '에게' and '에', and to describe the correlation that exists between the choice of using '에게/게' and the animacy of the preceding noun phras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the research would like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of the animacy and the grammatical phenomena. Corpus was used to provide empirical data.

The choice of whether to use '에게' or '에' is a grammatical field, which ha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animacy. Through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NP에게' and 'NP에', the research found out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hoosing the particles is the animacy, and confirmed that the animacy is related to a ranking system. The higher the rank in the animacy, the higher chance to select the particle '에게'. The animacy ranking is not only related to the animacy itself, but factors such as individualization, referentiality, definiteness and singularity are also interacting in multi-layered way.

However, the factor that influences making choice between the particle '에게' and '에' is not only the animacy, which is the semantic attribute of preceding noun phrase. Semantic, syntactic and stylistic factors such as semantic attribute of predicates, the combination of predicates and argument can be influential as well.

The research examined the animacy hierarchy of Korean language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that is related to making selection between the particle '에게' and '에'. Thus further research should be supplemented with other syntactic phenomena such as selection of subjects or topicalization.

Keyword: particle 'ege', particle 'e', animacy, animacy hierarchy, individuation, referentiality, definiteness, singularity, corpus

핵심어: 조사 '에게', 조사 '에', 유정성, 유정성 위계, 개별화, 지시성, 한정성, 단수성, 말뭉치